

〈총설〉

文化遺產 保存의 概念과 保存 理論

강대일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Concept and Theoretical Issues of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Kang Dai-Il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conserva@nuch.ac.kr

초 록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개념의 문화유산 보존이 등장한 것을 일제 강점기(1910-1945)이다. 당시 일본에 의해 도입된 문화 유산 보존의 근대적인 개념은 해방 후 손상된 문화 유산의 보수와 수리 등 실질적인 보존 처리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문화유산의 보존 개념과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conservation'에 관한 다양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근대적인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각 국 간에 'conservation' 이란 용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대 보존이론의 발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존 원칙 및 윤리규범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보존의 방향 또한 확고해질 것이다.

중심어 : 문화유산, 보존, 복원

ABSTRACT Koreans began to undertake the conservation of their art and architectural artifacts approximately fifty years ago after modern concept of conservation were introduced by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10-1945). But still the modern concept of conservation is not clear to many Korean conservators because they have been concerned about conservation techniques to recover the original from of the remains be destroyed. Also, Korean conservation practice has neglected the philosophical issues and ethics of conservation.

So, in this article, I described various terms referring to 'conservation' which have been used in western countries, Japan, China, and Korea, and compared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o have more clear idea on the modern concept of conservation. In the next chapter, I summarized several theoretical issues which had been discussed among western conservators over the centuries. Specially, I described closely the modern issues and ethics which have been presented in the twentieth century.

As many conservation projects in Korea have resulted unsatisfactorily or been suspended altogether, because lacking a coherent theoretical dialogue on conservation and discussing an ethical issues of conservation. Therefore, I believe that more vigorous dialogue on these issues in Korea may lead conservators to consider their tasks in a more productive light, and the Korean artifacts may preserve well.

Key word :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restoration

I. 서언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 할 수 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근대적인 문화유산 보존개념을 도입한 일본은 總督關房會計課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수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1913년에 처음 보고한 『大正二年平壤普通門修理紀要』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의 보존처리공사는 1914년에 시작된 朝鮮古墳調査와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1913년 석굴암, 1915년 미륵사지석탑을 들 수 있다. 이들 문화유산은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지만 이는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방 후 손상된 문화유산의 보수와 수리 등 실질적인 보존 처리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문화유산의 보존 개념과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개념이 일찍 자리 잡은 유럽의 영국,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보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토대로 보존철학과 윤리와 원칙을 수립하여 왔고 때에 따라 보존철학과 원칙의 변화에 맞게 개념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개념정립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상태, 재질, 용도, 활용계획 등에 따라 각 분야별로 문화유산의 특성에 알맞은 보존 원칙과 윤리규범



Figure 1. Pyongyang Botongmoon gate.



Figure 2. Seokguram grotto(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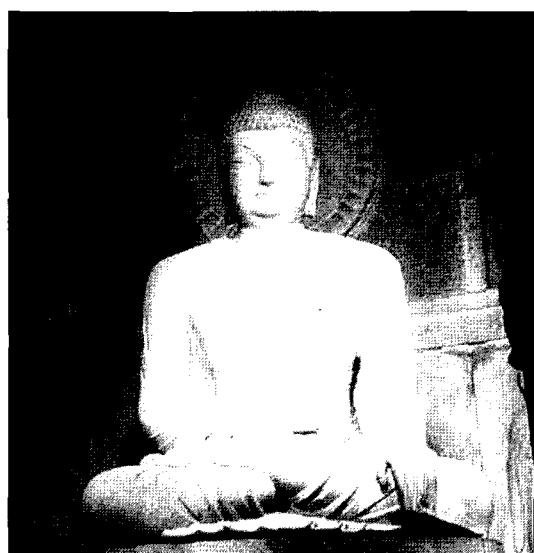


Figure 3. Seokguram grotto with Bonjonbul.

을 발전시켜 왔다. 각국이 보존의 개념정립과 원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과 이에 대한 보존이론 원칙이 보존의 방향과 목표, 방법을 선택하는 첫 출발점이며,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한번 보존처리를 잘못하였을 경우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이 어렵고, 잘못 보존된 경우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영원히



Figure 4. Stone pagoda of Mireuksa site(west).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존처리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보존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도입된 지 100여 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존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보존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존의 다양한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현재까지 형성되어 온 문화유산의 보존이론의 발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

문화유산의 보존은 문화유산이 후세에 전달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물질적인 형태와 미적·역사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손상된 문화유산에 적용하는 행위이다.¹⁾ 먼저,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등 서양에서

는 'preservation · conservation · restoration' · reconstruction²⁾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保存 · 修理 · 修復 · 復元 · 復原'³⁾ 등을, 중국에서는 '修復 · 修繕' 등을, 우리나라에서는 '保存 · 修理 · 補修 · 復元 · 舗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서양의 'preservation'이라는 용어는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폭넓은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conservation'과 'restoration', 'reconstruct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P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대신 채택하고 있는 미국 보존과학 자문위원회(United States National Conservation Advisory Council)는 conservation을 '문화유산을 가능한 한 불변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문화유산의 환경을 조절하고 문화유산의 구조를 관리함으로써 열화나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라 정의한다.

이 정의는 '농동적인 보존(active conservation)' (처리/treatment) 과 더불어 '수동적인 보존(passive conservation)' (예방, 환경 조절/prevention, control of the environment)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용어로는 '예방적인 보존(preventive conservation)' 과 '치료상의 보존(remedial conservation)'이 있다.

중세시대로부터 restoration이라는 용어는 소장품의 원래 상태를 reconstruct하는 노력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위에 언급된 위원회는 restoration을 '원래 상태, 원래 디자인, 색채 기능에 가능한 한 다가가도록 훼손된 예술품을 되돌려 놓는 조치' 라로 정의한다.

그러나 ICOM에서의 보존과학자 conservator·수복전문가 restorer: 직업의 정의 '를 보면' 심미적이고 역사적

1) Cesare Brandi, *Teoria del Restauro* (Rome :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1963) ; 同著, "Theory of Restoratio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 231.

2) 그 외에도 일부에서는 'rehabilit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rehabilitation'은 주로 건조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위한)재건 혹은 복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rehabilitation'은 20세기 전반에는 재건축(renovation, reconstruc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다가 2차대전 이후부터는 현존하는 건축물을 변형을 최소화하여 좋은 상태로 수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는 건축물의 역사적·건축적·문화적인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현대적인 용도에 알맞게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나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는 건축물을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보존한다기 보다는 현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보수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Edited by Ward Bucher, "Rehabilitation", *Dictionary of Building Preservation*(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96) p. 379

3) 원래 '修復'은 '修理復元'을 일컫는 말로서 일본에서는 이를 줄여서 '修復'이라고 한다. 姜大一, 「日本 保存科學의 現況」『文化財』27 (1994) p. 34.

인 완결성을 최소한 희생하여 훼손된 예술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 정의된다. 이는 Conservation과 Restoration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한 정의라 할 수 있다.

Restoration을 향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conservation과 restoration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들과 이 용어들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은폐시키고 있다.

Conservation과 restoration, 이 두 용어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보존과학자와 수복전문가라는 용어는 종종 교체사용된다. Conservation 또한 restoration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녹슨 철 소장품을 보존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1)녹을 불변 고정시키는 것, (2) 녹이 생기는 환경에 소장품을 그대로 두는 것, 혹은 (3)녹을 없애고 보호막을 씌우는 것 중에서 결정될 것이다. 대부분 (3)번 처리가 취해지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reconstruction을 포함한다.

Conservation과 restoration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cleaning이다. Cleaning은 축적된 먼지, 녹 등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더 심한 훼손을 예방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존 과정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cleaning을 면취야 하는가? 먼지는 소장품의 실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며, 소장품의 이력을 언급할 때는 기록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동시에 cleaning은 실제적 아이덴티티(factual iden-

tity)를 드러나도록 하고, 이는 restoration 과정에 연관된다. 그러나 실제적 아이덴티티(factual identity)와 현실적 아이덴티티(actual identity) 사이에 있는 경계선은 어디인가? 때때로 2차적인 정보로 간주된 것이 일차적인 정보로 판명되곤 하고, 제거작업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결말이 나곤 한다.

이들 두 용어는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해 줄 목적으로 문화유산의 손상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손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그 출발점이 같으나 문화유산에 개입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conservation'은 문화유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더 이상 손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 보존의 초점을 두고 있는 데에 비해, 'restoration'이나 'reconstruction'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미학적·외형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와 함께 서양에서 '보존'을 지칭하는 용어도 조금씩 다른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restauration'과 'restauro'를 사용하고 영국에서는 주로 'conservation'을 사용하고 있다.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보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유럽에서 '보존'을 지칭하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각 국가의 보존 역사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항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보존의 개념이 출발한 이탈리아의 경우는 보존을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재창조'의 작업으로 보았다. 때문에 현대의 보완적인 보존이론이 정립되기 이전까지는 실제 '보존'의 대부분이 문화유산의 미학적 측면을 개선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여 외형적으로 원형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나 19세기 중반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존 러스킨(John Ruskin)은 문화유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존활동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외형적인 개선이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가능한 한 현 상태로만 유지시키는 행위를 올바른 보존으로 인식하였다. 즉, 회복한다는 의미의 'restoration'보다는 유지한다는 의미의 'conservation'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당시까지는 'restoration'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보존의 올바른 개념에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conservation'이라는 용어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존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보존을 지칭하는 말로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는 'restoration'을, 미국 및 영국에서는 'con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보존의 개념에 대한 인식차이와 개입의 정도에 따른 관

4) 이탈리아의 국립문화유산보존연구소는 "ICR(Instiu to Centrale del Restauro)"이며, 미국의 계티보존연구소는 "Getty Conservation Institute"이고, 캐나다 보존연구소는 "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용어사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restauro'와 'conservation' 모두 '보존'을 지칭한다.

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완적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보존에 해당하는 용어로 'conservation' 과 'restoration' 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현대의 보완적 보존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용어는 결국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⁵⁾

한편,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保存·補修·修復·修理·復元·復原' 등의 용어 중에서 '보존'은 위에서 설명한 서양의 'restoration' 또는 'conservation'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문화유산에 개입하는 정도나 방식, 그리고 대상에 따라 '修理·補修·復元·復原'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修理'는 하나의 유물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 이를 원래의 형태대로 접착하거나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또한 '補修'는 주로 건조물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건조물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완전히 파손된 부분을 본래의 모습대로 침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復元'과 '復原'을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중 '復元'은 구체적인 증거와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파손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復原'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파손된 문화유산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복원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현재 皇龍寺址(사적6호) 九層木塔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이 검토되고 있는데 본 사찰을 현재 사지 내에 남아 있는 초석 등의 일부 잔존 유구만으로 과거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어 이는 '復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彌勒寺址 西塔(국보11호)을 근거로 하여 彌勒寺址 東塔을 복원한 경우는 확실한 고증자료인 西塔을 근거로 동탑을 '復原' 한 것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문화유산의 특징과 보존방향에 따라 약간씩 애 있어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보존'의 개념에는 단지 유물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보존처리작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찾아내는 노력과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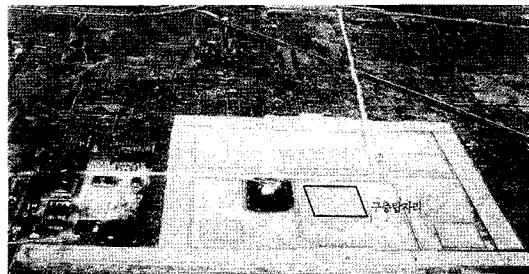


Figure 5. Hwangnyongsa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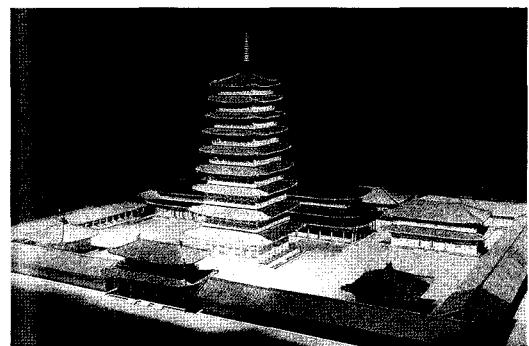


Figure 6. Reconstruction Mass of Hwangnyounsa Temple Pagoda (designed by Kim Dong Hyun).



Figure 7. Stone pagoda of Mireuksa site (reconstruction, East).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과학적인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의 손상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한 후,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보존처리과정에 사용할 재료를 결정하고, 유물에 가장 적

5) 이들 두 용어를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게 된 것은 비록 보존의 역사에서 출발하였으나 'restoration' 과 'conservation' 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현대의 보완적인 이론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한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에 현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합한 재료를 개발하여 순상된 문화유산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원형에 가깝게 보존처리 하는 직접적인 과정,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결정 뿐만 아니라, 보존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학술교류와 같은 장기적인 활동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⁶⁾

III. 문화유산 보존이론

인류의 문화유산은 고대로부터 현대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화유산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개념 역시 우리가 과도기적인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다음세대에 계승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현대의 보존원칙과 이론적 바탕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논의해 온 보존철학과 다양한 보존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방향 및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⁷⁾

1. 보존이론의 태동 (19세기 초반 이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후손들의 보존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즉,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과 관심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미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중세를 거쳐 14세기 이후로 전개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품 애호와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인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보다 과학적인 도구와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활동은 19세기 초반에 과학적·합리적 보존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갔다.⁸⁾

예를 들어 그리스 시대에 올림피아에 있는 해라신전의 목재기둥이 부식되었을 때, 그리스인들은 기존의 목재기둥 대신에 대리석기둥으로 조각하여 교체하였다. 이것은 이 당시의 그리스인들이 원래의 양식과 재료를 고수하기보다 보수 당시에 유행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로마제국에서는 건축물을 보수할 때, 처음에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떼어낸 벽돌을 사용하다가 후에 새로 제작한 벽돌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벽돌에 별도의 부호를 새겨 기존의 벽돌과 구분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역사적 건물에 있어서 제작될 당시의 재료와 후대의 보수 시 사용된 재료를 서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원형을 후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나 중세에 기독교 문화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일반 생활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등장하자. 고대 신전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은 교회로 개조되거나 해체되어 부재들이 대리석 상인들에게 팔리는 등 수난을 겪었다.⁹⁾

이에 대해 건축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에 대한 조직적 조사활동을 하여 판테온, 바티칸의 오벨리스크, 성 피처와 성 바울 사원의 바실리코 등을 실

6) 이 과정에서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존과학'이란 원래 문화유산의 조사와 수리를 위해 자연과학적 방법을 응용하는 연구분야를 지칭하였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미술사 등 관련분야에서 과학적, 즉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를 문화유산 보존에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52년 文化財保存研究会(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에 保存科學部가 설치되면서 '보존과학'이라는 용어와 이에 대한 영어명으로 'Conservation Science'를 사용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경부터 'Conservation Sci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John Winter가 회고한 것으로 볼 때 '보존과학'이라는 용어는 서양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澤田正昭,『文化財保存科學ノート』(近未來社, 1997) pp. 13~15. 국내에서 보존과학이란 용어가 출현하는 것은 1968년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서문에 보존과학의 학술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처(1968)

7) 본 논문에서는 'conservation'과 'restoration'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보존'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건축물의 'reconstruction'과 'renovation'에 대해서는 '보수'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다만 원문에서 'conservation'과 'restoration'을 '보존'으로 통일하여 번역한 경우라도 원문에서 사용한 용어는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8) 金泰建,『文化財補修理論』(文化財管理局, 1992) p. 75.

9) 그 대표적인 사례는 콜로세움의 대형 대리석 부재들이 베드로 성당을 축조하는데 이용된 경우이다. 윤재원,『콜로세움의 보수사(Stona de Restauro del Colosseo)』,『건축역사이론』, 제6권, 2호(1997, 6) p. 99.

측하고, 도면을 제작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실측작업 등을 통한 과거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후 등장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르네상스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6세기 유럽 전역을 풍미했던 예술사조로서 이 시기에는 예술에 대한 큰 관심과 그에 따른 수많은 작가들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귀족들은 회화작품을 위한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지원은 곧 많은 작품의 수집과 연결되었다. 귀족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예술작품이 손상되었을 때 당대에 활동하고 있던 최고의 작가들을 고용하여 당대의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재료와 기법으로 수리하고 복원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처리된 예술작품들은 얼마 되지 않아 심하게 손상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보존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과학적인 수리 및 보존방법에 대한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19세기 초반에는 남아 있는 부재를 사용하여 건조물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부재에 대한 혼적을 남기지 않고 원래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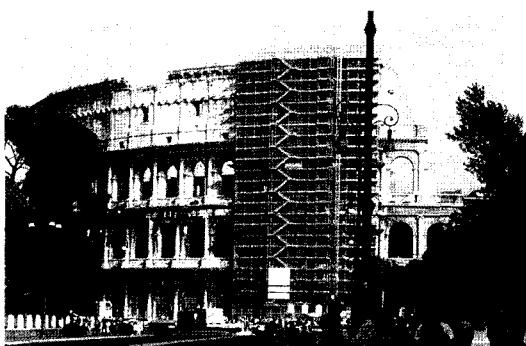


Figure 8. Colosseum

와 동일하게 제작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는 형태의 보존처리가 계속 이루어졌다. 특히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고대 유적지들이 복원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초반까지 건축유적지에 대한 보수작업은 건축물의 원래 모습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손상 또는 결실된 부분에 당시에 유행하는 양식의 부재를 넣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와 다른 많은 양식적 변형을 일으키거나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2. 과학적 보존이론의 출현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전대의 비합리적인 보존 및 수리들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존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무렵부터였다. 이때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크게 두 가지의 보존이론이 제시되어 양자간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고고학과 미술사와 같은 인문학적인 분야에 바탕을 두고,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인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의 손상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보존이론과,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개입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이다.¹⁰⁾

먼저 문화유산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선두주자는 프랑스의 건축가이면서 건축사학자인 비오레르듀크(Eugene-Emmanuel Viollet-le-Duc, 1814~1879)이다. 그는 1854년 그의 대표적인 글 「보존(Restoration)」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존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재료와 건축기술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보존 담당자는 건축가의 의도와 그가 속했던 유파에 대한 연구까지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10) 이러한 두 이론에 대해 전자에 대해서는 '樣式主義補修理論', 후자에 대해서는 '浪漫主義補修理論'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Renato Bonelli, "Principles of Architectural and Urban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Encyclopedia of World Art*, (New York Toronto London, Macgraw-Hill Book Company, 1966) pp. 194~195. ; 金奉建,「文化財補修理論」,《文化財》25(1992) pp. 76 ~ 81. 이는 양식주의보존이론의 선두주자인 Viollet-le-Duc가 그의 논문에서 양식주의에 입각한 보존을 주장하였고, 낭만주의보존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John Ruskin이 피력한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이 낭만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Viollet-le-Duc의 '양식'에 입각한 보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John Ruskin 역시 문화유산 보존에 반대하는 그의 보존이론은 합리적 과학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는 재고되어야 한다.

11) Eugene Emmanuel Viollet-le-Duc, "Restoration", *Dictionnaire raisonné de l'architecture française du XIe au XVIe siècle* vol. 8 (Paris : B.Bance, 1854.) ; 同著 trans. Kenneth D. Whitehead, "Restoration", *The Foundations of Architecture : Selections from the Dictionnaire Raisonné* (New York : George Braziller, Inc., 1990.)



Figure 9. Viollet-le-Duc (1814-1879)

그의 과학적인 접근방식은 전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서 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전에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심하게 조사하는 동시에 문화유산의 재료와 기법을 연구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보존활동의 기본 틀을 갖추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그는 전시대에 이루어진 보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보존이론을 '양식의 통일'에 기초하여 모든 건물과 건물부재들을 하나의 우세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의 통일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철저한 문헌 조사, 바탕으로 부분보다는 전체에 초점을 두어 전체의 우세한 양식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비오레르듀크는 이러한 '양식의 통일'에 입각한 보존 이론을 적용하여 1840년 바질리 성당의 보존공사와 1844년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의 보존공사에서 시대가 다른 부재들을 하나의 시대에 맞추어 양식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존에 있어서 이러한 양식적인 통일을 위한 변형은 많은 문화유산이 후대에 이루어진 보존의 흔적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의 양식으로 되돌리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변형되는 결과를 낳았으면서 후대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해석에 대해 최근 들어, 그의 이론을 재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¹²⁾ 특히 현대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더불어 활용의 측면을¹³⁾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보존 이론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 해당 세대가 보다 다양하게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과거와 대화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양식통일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비오레르듀크의 이론에 강한 반대의 견을 제시한 영국의 두 학자는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이다.

먼저 존 러스킨은 보존(restoration)을 가장 나쁜 괴행위로 규정하면서 죽은 자를 회생시킬 수 없듯이 건축물에 있어서도 그것이 간직했던 위대한 모습이나 이름 다음을 회생시킬 수는 없으며, 이는 작품을 창조한 작가의 관점과 창조 정신에 개입하여 서로 다른 예술정신을

12) 그 한 예로, Alessandra Melucco Vaccaro는 「Restoration and Anti-Restoration」에서 "수많은 건축물과 유적지들이 폐허 속에 방치되었다면 환경오염의 증가로 인해 손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19세기의 주의 깊고 심사숙고한 재건축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비오레르듀크의 '양식의 통일'에 입각하여 완성된 부분들은 그가 보존처리 한 후부터 현재까지 쌓인 세월의 흔적과 먼지들로 인해 더욱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서, 비오레르듀크의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Alessandra Melucco Vaccaro, "Restoration and Anti-Restoratio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312

13)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외에 역사적, 종교적, 교육적, 학문적인 면에서 서 각 목적으로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활용의 문제는 비교적 현대에 논의하기 시작한 분야로 보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보존의 목적이 단순히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는 목표에서 벗어나 당대에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의 산물로만 인식되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현대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존의 범위와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보존처리 후 활용의 방향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게 보존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4) "우리는 과거의 건축물을 개입할 권리가 전혀 없다. 이 건축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지은 건축가, 그리고 일부는 미래의 모든 세대들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문화유산이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현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올바르게 유지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현대의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Alessandra Melucco Vaccaro, "Restoration and Anti-Restoratio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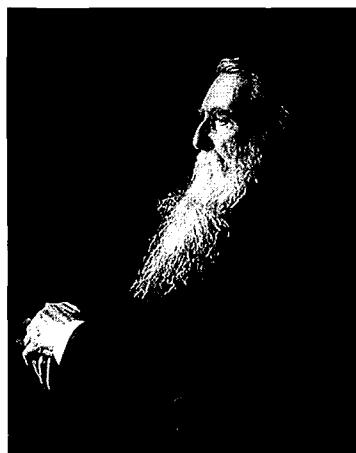


Figure 10. John Ruskin (1819-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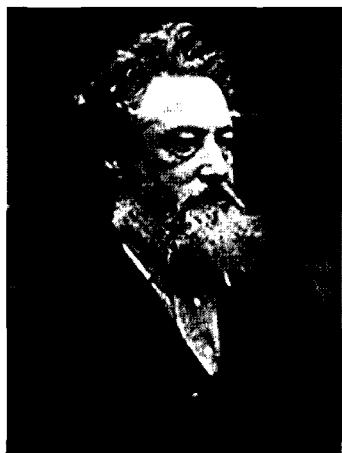


Figure 11. William Morris (1834-1896)

반영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즉, restoration을 건축유산의 재건축 혹은 창조의 대상으로 간주한 비오레르듀크와는 달리 ‘원형 그대로의 보존’, 문화유산이 발견된 상태 그대로, 당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모습대로의 보존 ‘에 충실하고자 하였다.¹⁵⁾ 이 관점은 보존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손상되는 문화유산을 무조건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당대에 행해지고 있는 적극적인 문화유산보존에 대해 비판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최대한 신

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이론은 문화유산이 당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승되어 왔으며, 미래에 올바르게 상속하여야 할 유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하게 보존이 필요 한 경우에 문화유산의 세월의 흔적을 없애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보존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 설명할 현대 보존이론의 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윌리엄 모리스도 존 러스킨의 이론을 지지하면서 1877년 고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단체(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를 설립하고,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수작업은 건물의 구조나 장식물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는 ‘원형의 최대한의 보존’을 주장하면서 ‘양식의 통일’에 의한 인위적인 혜손과 변형을 막고 후손들에게 가능한 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물려주고자 노력함으로써 이 시기에 비오레르듀크와는 상반된 보존이론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의 이론은 이미 많이 손상된 문화유산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혜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손상을 일으키도록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활용을 극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후대에 변형되거나 침가된 세월의 흔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두 이론에 대해 중립적인 보존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학자 카밀로 보이토(Camillo Boito, 1836~1914)였다. 그는 모든 건축물은 역사적인 가치뿐 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증거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변형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유물을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새로운 부재를 첨가해서는 안 되고 대신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존이 이루

15) 金奉建,「文化財補修理論」,『文化財』25, 文化財管理局, 1992, p. 80.

16) William Morris, “The Principles of th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as Set Forth upon Its Foundation”, *Builder*25 (1877) : 同著,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p. 319 ~ 321.

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존 러스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어떤 것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자료에 바탕을 두고, 첨가된 부재는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오레르듀크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보존처리과정에서는 후대에 첨가된 부재들이 구조적으로 변형을 일으키거나 손상을 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일부로서 간주하여 이를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존러스킨의 이론이 지난 단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중반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비오레르듀크의 이론과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존 러스킨·윌리엄 모리스의 상반된 보존이론이 큰 출기를 형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20세기 초반까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카밀로 보이토가 이 이론들을 절충하는 중립적인 보존이론을 제시하여 현대 보존이론의 출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 보완적 보존이론의 전개 (20세기 중반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오레르듀크의 보존이론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존 러스킨·윌리엄 모리스의 이론은 보존처리작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19세기 초 수많은 전쟁 속에서 파괴된 문화유산에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기

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1945년 이후부터 기존 이론의 장점을 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처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이론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에는 이러한 보완적인 현대 보존이론을 바탕으로 보존이 미술사나 고고학의 한 분야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분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존의 분야도 유물의 재질에 따라, 혹은 재질분석·각 종 환경 및 손상상태조사·보존처리기술 및 재료의 개발 등의 연구 분야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나갔고, 이를 토대로 전대의 보존이론을 모든 유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유물의 종류와 상태에 적합한 세부원칙들을 세워 유물의 종류별·손상상태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국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여 수많은 보존 관련 국제현장이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이를 현장에 전대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현대적 이론들이 반영되었다.

전대의 이론을 수용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대이론을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이탈리아의 미술사학자이며 비평가인 체사르 브란디(Cesare Brandi, 1906~1988)를 들 수 있다. 그는 1939년 국립문화유산 보존연구소(Istituto Centrale del Restauro)를 창설하여 1961년까지 소장으로 역임하면서 보존의 역사와 이론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 후 1963년 그의 연구가 집대성 된 『보존에 대한 이론(Teoria 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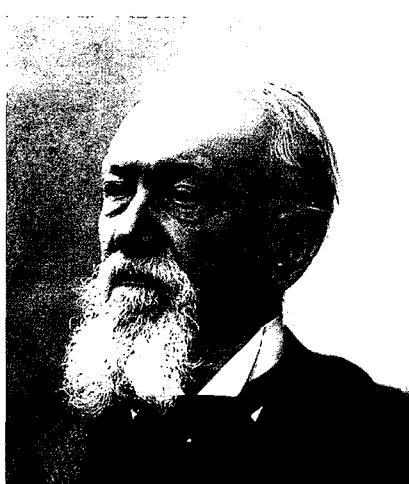


Figure 12. Camillo Boito (1836-1914)



Figure 13. Cesare Brandi (1906-1988)



Figure 14. Italy, 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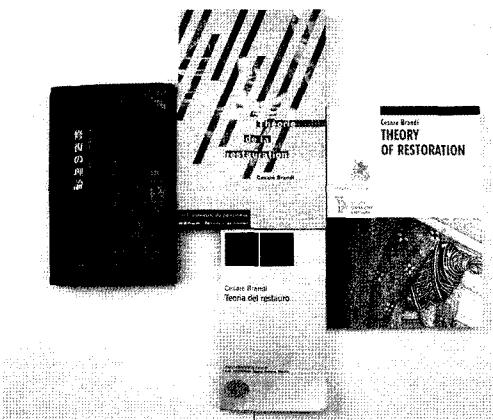


Figure 15. Theory of Restoration (by Cesare Brandi)

Restauro)』을 출판하면서 비오레르듀크와 존 러스킨의 이론을 수용하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존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보존처리를 할 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미학적 이중성을 늘 염두에 두고 문화유산의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왜곡된 변형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시간의 흔적을 지우거나 문화유산의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한 선까지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보존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가역성'의 개념을 체계화시켜 현대 보존이론에 '가역성'을 필수요소로 등장시켰다. 이러한 주장은 당대에 하고 있는 보존처리가 해당유물에 대한 마지막 보존처리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존처리가 계속될 것을 감안하여 유물에 보다 적절한 보존처리재료가 개발되었을 때, 언제든지 전대의 보존처리에 사용한 물질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그는 예술작품에 대해 작품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과 보조적이고 구조적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물질간의 차등적인 계급을 설정하였는데 보존처리과정에서 하는 변형은 이미지에 가시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¹⁷⁾

벽화의 경우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채색층에 변형을 가하여 그 미학적인 면을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채색층을 밭치고 있는 화벽이나 중벽, 초벽의 경우는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후대의 수많은 보존처리작업이 이 이론을,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을 과감하게 변형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또한 벽화와 같은 회화작품에는 그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건축물에서는 각 부재에서 이미지와 구조적인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화유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¹⁸⁾

다음으로, 미술사와 보존이론을 강의하면서 1959년부터 1977년까지 ICCROM에서 근무하였던 벨기에 출신의 폴 필립보(Paul Philippot, 1925)는 보존처리전문가였던 아버지 알베르 필립보(Albert Philippot, 1899~1974)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채사르 브란디의 보존이론을 한층 보완하고, 보다 진보적인 보존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보존과학과 분석 및 조사작업을

17) 이러한 구분의 예로 회화작품을 들 수 있다. 곧 실제 그리는데 사용한 채색용 물감으로 어떤 형상을 표현한 것이 '이미지(image)'라면, 이미지에 대한 '보조적이고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structure)'은 채색층을 밭치고 있는 패널이나 프레임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차등적인 구분을 하면서도 이들이 물리적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고 두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보존처리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 General Problems", *Encyclopedia of World Art*, Vol.12, col. 179~184(New York, Toronto, London :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참고.

18) Giovanni Carbonara, "The Integration of the Image:Problems in the Restoration of Monumen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p. 236 ~ 240.

보존의 중요한 과정으로 강조하면서도, 국제기구에서 오랜 기간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존처리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과 중요한 원칙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존의 중요한 사안으로 끌어들였다.

Philippot는 현대 보존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역사적·인문학적인 접근(historico-humanist approach)과 과학기술적인 접근(techno-scientific approach)으로 보았다. 과학기술적인 접근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등장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과학적 도구와 조사방법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이며, 역사적·인문학적 접근은 전대의 비오레르듀크·존 러스킨·윌리엄 모리스 등이 고민했던 보존의 철학적 문제와 보존의 기본방향에 대한 접근으로 보고, 이들 중 역사적·인문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⁹⁾

이러한 역사적·인문학적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그는 현실 속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존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시켰는데 폴 필립보가 '활용'을 보존이론에 새롭게 부각시킨 것은 역사적·미학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야외에 혹은 매장된 상태로 문화유산을 현대인들의 관심 밖에 두는 것과 유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박물관의 유리진열장 안에서 마치 화석과 같이 전시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보존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보존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미학적 가치와 더불어 활용의 문제를 이론적·현실적 관점에서 고려한 후에 이에 적합한 보존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보존과 활용과의 관계에 대한 예로서 멕시코 Guanajuato의 Cata 성당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Philippot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내부에

종교적 獻納物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보존을 하면서 건축학적인 통일을 위해 이것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²⁰⁾

이러한 그의 이론에 힘입어 현대에는 활용과 보존을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 보완적인 요소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많은 관람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 및 오염이 예술 작품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예술작품이 의사소통의 형태이며,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관람객을 통제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 하에 나타난 것이다.²²⁾

이상과 같이 20세기의 보존이론들은 비오레르듀크가 택한 과학적인 세밀한 조사와 존 러스킨이 주장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나친 개입에 반대하는 이론을 서로 절충하고, 실제 보존처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전대의 모호한 이론들은 이시기에 좀 더 구체적인 보존이론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보다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일 문화유산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도시 전체에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20세기 중반에는 많은 국제현장이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1931년의 아테네회의의 권리(Athen Charter)·1964년의 베니스 협약(Venice Charter)·1981년 부에라 협약(Buerra Charter) 등에서는 양식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지 말고 건축물에 남아 있는 여러 시대의 흔적들을 존중할 것

19) Paul Philippot, "La restauration dans la perspective des sciences humaines", *Penetrer l'art, Restaurer l'oeuvre : Une vision Humaniste : Hommage en forme de florilege*, (Kortrijk : Groeninghe, 1989), pp. 491 ~ 500. ; 同著 "Rest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p. 216 ~ 229.

20) 그는 이러한 보존방식에 관해 친성 또는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보존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의 특수성, 종교적인 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Paul Philippot, 위의 논문, pp. 218 ~ 219.

21) 이전까지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을 교육적·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손상이나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문화유산을 박물관이나 수장고에 보관만 해놓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보존'과 '활용'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22) Alessandra Melucco Vaccaro, "The Emergence of Modern Conservation Theory : Introductio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p. 202 ~ 211.

을 권고하고 있으며, 베니스 협정과 부에라 협장에서는 추측에 의한 보존처리를 배제하고,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다 유연성 있게 문화유산의 재질별로 구체적인 원칙들을 수립해 나아가고 있다.

1990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고고유산 전승 관리를 위한 로잔헌장(The Lausanne Charter)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reconstruction은 잔존되어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실시되어야 하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증거물들을 참고해야한다. 가능성과 적절한 이유만으로 고고유물을 복원 할 수 없다. 정확한 경우에만 reconstruction 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1994년에는 각 국의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형태보다는 무형의 가치와 기술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관한 나라 회의(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가 채택되었다.

2000년 리가 협장(Riga Charter)에서는 reconstruction은 아주 특수한 예외의 경우에만 허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Conservation 또는 reconstruction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계승의 의미를 유지 부각시키는 것이고 진정성이란 문화유산의 속성(양식 및 디자인, 재질과 물질, 활용과 기능, 전통과 기술, 장소와 설치 또한 정신과 감정 등)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문화유산 계승의 모방을 일반적으로 과거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대 재난에 처했을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reconstruction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결언

지금까지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의미와 함께 보존의 현대적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개념을 토대로 보존이론의 발달과정과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대보존이론을 살펴보았다.

보존의 개념은 그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가, 또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용어와 개념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본철학과 원칙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리고 각 문화유산의 특징, 종류, 보존 상태에 따라 정해진 원칙들은 실제보존처리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국제적 기구나 단체 등에서는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존윤리와 원칙을 정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 한 예로 1985년에 발표된 캐나다 IIC(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의 '문화유산 보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 윤리규범과 원칙' (IIC/CG Code of Ethics and Guidance for Practice for Those Involved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에는 보존처리 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 뿐 만 아니라 보존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윤리규범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존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윤리규정은 보존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보존처리 하는 것을 막고, 보다 과학적·합리적·윤리적인 사고와 방법을 도입하여 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초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황룡사 복원을 위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다음의 사항이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세계 유산 협약 실행을 위한 운영 지침서 (Operation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for the World Heritage Conservation)에는 1994년의 나라 회의(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를 재상기하면서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고고유적 또는 역사적 건조물이나 지역의 reconstruction 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Reconstruction은 완전하고 상세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만 수용가능하며 어떠한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존의 개념을 바로잡고, 우리문화유산에 적합한 보존윤리규범과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과 윤리규범은 단기간에 확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존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기관의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이들이 보존의 기본개념과 합리적인 원칙을 토대로 문화유산 보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澤田正昭,『文化財保存科學ノート』,近未來社,(1997)
2. *Encyclopedia of World Art*, New York Toronto London, Macgraw-Hill Book Company, (1966)
3. Edited by Ward Bucher, *Dictionary of Building Preservation*,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96)
4.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5. 姜大一,「日本 保存科學의 現況」『文化財』27, 文化財管理局, (1994)
6. 金奉建,「文化財補修理論」『文化財』25, 文化財管理局, (1992)
7. 윤재원,「콜로세움의 보수사(Stona de Restauro del Colosseo)」『건축역사 이론』제6권2호, (1997, 6.)
8. Alessandra Melucco Vaccaro, "Restoration and Anti-Restoratio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9. Eugene Emmanuel Viollet-le-Duc, "Restoration", *Dictionnaire raisonné de l'architecture française du XIe au XVIe siècle* vol. 8 ,Paris : B.Bance, 1854 ; 同著 trans. Kenneth D. Whitehead, "Restoration", The Foundations of Architecture : Selections from the Dictionnaire Raisonné, New York : George Braziller, Inc., (1990)
10. Giavanni Carbonara, "The Integration of the Image: Problems in the Restoration of Monumen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11. Paul Philippot, "La restauration dans la perspective des sciences humaines", *Penetrer l'art, Restaurer l'œuvre : Une vision Humaniste : Hommage en forme de florilege*, Kortrijk : Groeninghe, 1989 : 同著 "Rest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12. Renato Bonelli, "Principles of Architectural and Urban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13. William Morris, "The Principles of th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 as Set Forth upon Its Foundation", *Builder*25 (1877) : 同著,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os Angele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14. Cesare Brandi, *Theory of Restoration*, 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 (2005)
15. John Ruski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Inc (1989)
16. Camillo Boito, *Conserver ou restaurer*, Les Editions de l'imprimeur (2000)
17. 木村勉, 金出ミチル, 修復, 理工學社 (2001)
18. 金東賢, 皇龍寺址의 建築計劃에 관한 연구,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1993)
19. Chris Miele, From William Morris, Yale University Press (2005)
20. Knut Einar Larsen,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Conference de Nara sur l'Authenticité, UNESCO (1995)
21. 황룡사 복원 국제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